

이훈익 : 안녕하세요 도이취 선생님, 바쁜 시간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국의 'ORGAN' 잡지에 실게 되는데, 한국에 발간될진 적이 있으십니까?

도이취 : 예, 오래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마스터클래스에 초대 된 적이 있어요. 찬양교회와 소영교회에서 연주회도 했었고, 개인레슨도 했지요. 매우 조직적이었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편집자 주: 1996년 4월, 연세대학교 교명지교수에 의해 초청되었음.)



소영교회에서의 연주회

이훈익 : 이렇게 오르간을 공부하시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이취 :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1살이 되면서 교회에서 처음 오르간을 접하게 되었지요. 작은 남반 오르간이었었는데, 폐단을 사용할 줄 몰라 오르간을 피아노처럼 연주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폐단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폐단을 배우려면 폐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오르간 곡선을 받기 시작했어요. 17살에 지브뤼켄슈타에 교회음악 B 입학시험을 합격했지요. 입학 신청 시, 마성년자의 부모님의 서신이 적힌 동여서가 필요했어요. 동시에 피아노교육과 오르간 교육을 전공했는데, 당시 오르간은 자을 슈나이더 교수님께 배웠어요.

교회음악 B과정 졸업 후, 2년간 군복무를 해야했지요. 군인이 되는 것이 싫어 Zivildienst(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를 했는데, 프라이부르크 대학 병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정신과 상담하는 것을 했어요. 군복무를 마친 후, 교회음악 A를, 그 후엔 오르간 최고연구자 과정을 계속 지브뤼켄 에서 공부했고,